

도쿄시 도시재정비계획과 경관색채 형성에 관한 연구

송대호^{1*}

¹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Planning and Color-scape Formation in Tokyo

Dae-Ho Song^{1*}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일본의 도쿄(東京都)와 같은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구성요소 중 경관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형성 계획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일본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나타난 사업배경과 미래상 그리고 도시만들기의 목표, 경관형성 계획에 따른 색채현황 및 형성시책, 진행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재정비 및 경관계획시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city such as Tokyo is an instance of maximizing the urban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cities by actively utilizing color-scape among elements making identities. On this study, It's focused on Tokyo, developing urban identities, and aim to consider the implication and the feature of urban landscape formation by looking for the background of business and future images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aims, processes, policies, the color-scape about the landscape formation planning. It's expected to be reference for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and landscape plan in a long-range view.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Planning, Tokyo, Landscape Formation, Color-scap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도시들도 이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전래되는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방문자들에게 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도시에 대한 귀속감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은 도시경영상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1]. 이에 현대사회에서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통해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의 정체성은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전략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도쿄와 같은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구성요소 중 경관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쿄는 '세계를 리드하는 매력 있고 풍성한 국제도시 도쿄 창조'라고 하는 도시만들기 목표와 함께 도쿄만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정비계획을 실시하고 구역별 경관색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였다. 이와 같이 경관색채를 통한 도시 정체성의 확보는 방법적 차원에서 그 도시만의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형성 계획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살

*교신저자 : Dae-Ho Song

Tel: +82-10-7209-3503 e-mail: dhsong@pknu.ac.kr

접수일 11년 12월 30일 수정일 12년 01월 26일

재제확정일 12년 03월 08일

린 일본 도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나타난 사업배경과 도시 미래상 그리고 도시만들기의 과정 및 목표, 경관형성 계획에 따른 시책 및 진행방식, 색채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재정비 및 경관형성 계획시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도쿄의 도시재정비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주목되고 있는데, 도쿄의 도시계획은 196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단계로서 내용적 범위를 선진국 수준에 있는 일본의 경관형성 과정이나 시책, 진행방식,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우수 경관이 시사하고 있는 바를 고찰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쿄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경관색채 형성현황 분석은 2000년대 이후의 ‘도쿄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색채 신고대상 구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내용의 성격상 주로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 및 전개가 이루어졌으며, 다만, 색채환경 부분은 현실감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촬영된 관련사진을 첨부하였다. ‘문헌고찰’의 경우는 국내의 서적과 논문, 보고서, 관련사이트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2. 도쿄의 도시재정비계획

2.1 사업배경 및 도시 미래상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에 특수를 가져왔고 도쿄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후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어 1955년에 인구 8백만을 육박했고, 1962년에는 천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한편, 지나친 인구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등장하였고, 핵도시 육성 등 위성도시 개발로 잠시 도쿄의 인구가 주변으로 이주되었지만, 1990년대 말 다시 도심부의 재개발에 따라 인구가 도쿄로 이주하고 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100년간 일본의 인구는 약 3배로 증가하여, 도쿄는 인구 약 1,300만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최대의 거대 도시권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향후 일본의 인구는 저출산의



[그림 1] 도쿄의 입지
[Fig. 1] Tokyo's location

진행에 따라 2050년에는 현재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급격히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의 산업화 등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쿄의 산업도 큰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공항정비 지연 등에 의한 국제도시로서의 지위 약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흉악범죄 증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도쿄는 20세기부터 이어져온 과제와 위기적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도시 간 경쟁의 격화,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인류존망과도 직결되는 환경문제의 현재화, 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새로운 산업과 라이프스타일의 출현 등 21세기 사회경제의 큰 변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주체적인 새로운 도시만들기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이에 1960년대부터 도쿄에서는 도시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된 요구에 발맞추어 도시계획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도쿄시에서 지향하는 도시의 미래상은 큰 원형의 거대도시 즉,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구조이다. 이 원형의 도시구조는 도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도시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원형 방향의 도시와 도시와의 연결을 중시하여 교통망의 정비를 진행하는 등, 도쿄권 전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제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도쿄권의 다른 현, 시와의 광역제휴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도의 구역에서 선도적 또는 전략적인 대처를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도쿄를 메가로폴리스 5대 핵심구역, 즉 센터, 중심부 재생구역, 도쿄만 워터프론트 활성화구역, 도시환경재생구역, 핵도시 광역제휴 구역, 자연환경 보전, 활용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3], 동시에 도시간의 연결을 중시하고 교통망의 정비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효율성과 효과적인 기능 제휴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2 도시만들기의 과정 및 목표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쿄시에서는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1960년대부터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는 도쿄로의 인구밀집에 따른 도시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고, 이에 따라 반공해, 생활기반조성, 복지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물리적 성장으로부터 ‘계획된 도시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율적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도쿄장기계획 -My Town Tokyo- 21세기를 향하여’라는 계획에서 도심업무기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20세기말까지 다핵형 도시구조로 전환하고자 도시의 업무기능을 분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다심분산형 도시구조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블 경제하의 건설경기 과열은 도쿄 도심으로의 지속적인 과도한 집중을 막지 못하였다[2].

따라서 2000년부터 새로운 장기플랜으로 도시계획을 시작하게 되는데,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도전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 도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는 오랜 고민으로 도시변화의 방향을 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도시만들기 목표를 ‘세계를 리드하는 매력 있고 풍성한 국제도시 도쿄 창조’라고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유도 시점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5가지 이념을 세운다.

[표 1] 도쿄의 도시만들기 목표

[Table 1] Tokyo's urban development goals

구분	목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 활력 유지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 배려 •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활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도시활력 유지발전 도모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환경과의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의 보호, 유지 • 도쿄권과 수도권 전체의 환경으로 시야를 넓힘 • 환경부하 감소와 환경과의 공존 도모
독자적인 도시 문화의 창조와 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의 도시만들기 •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 • 독자성 있는 도시문화 창조 발신 도모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질 높은 생활 환경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성(지진, 수해), 열악한 주거수준, 자동차 대기오염 등의 생활환경 상의 문제 개선 •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경관만들기 촉진과 방법경관 만들기 추진 •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질 높은 생활환경 실현
다양한 주체 참가와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지역 장래상과 계획 정책수립 • 사업실행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사업자, NPO, 전문가, 지역경관만들기 조직 등의 참가유도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수도를 담당하는 도쿄권에 맞게 앞으로도 도시의 번영을 지속하고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활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도시활력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지구환경의 보호·유지 차원에서 도쿄권과 수도권 전체의 환경으로 시야를 넓혀가며, 도시만들기에 환경부하의 감소와 환경과의 공존을 도모함과 동시에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 사람들이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의 싹을 피울 수 있는 관광 도시만들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독자성 있는 도시문화 창조와 발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질 높은 생활환경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지진과 수해 등의 재해위험성, 열악한 주거수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생활환경 상의 문제개선을 추진하고, 도시민에게 편안한 경관만들기 촉진과 방법경관만들기 추진 등,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질 높은 생활환경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장래상을 목표로 한 도시만들기를 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 장래상과 계획 등의 정책수립으로 사업실행과정에서 시민과 민간사업자, NPO(Non-Profit Organization), 전문가, 지역경관만들기 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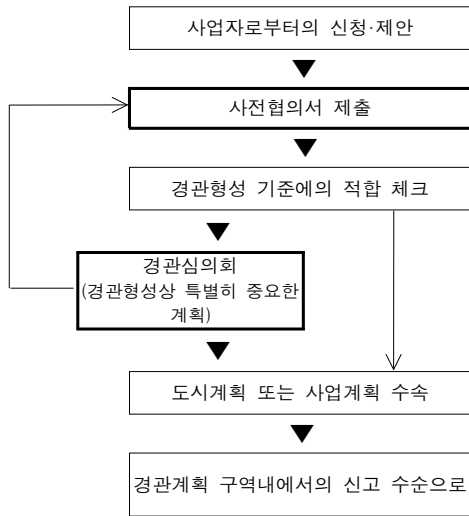
3. 경관색채 시책 및 사전협의 방식



[그림 2] 이노카시라온시 공원 (井の頭恩輝公園)
[Fig. 2] Inokashiraonsi park

도쿄는 에도 관청을 설치한 이래 400년의 긴 역사와 전통 위에 쌓아 올려진 세계 유수의 대도시이다. 특히, 도쿄에는 우쿠타마의 산들이나, 계곡, 신록, 이노카시라온시 공원, 무사시노시의 잡목림, 하천이나 운하 등의 다양한 수계, 그리고 섬들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풍부한 자연이 남아 있는데, 도쿄의 도시재정비계획은 이러한 지역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즉, 도쿄에서는 경관법의 시행이후 2008년에 「도쿄도 경관계획」을 책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색채 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현시책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도교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법’을 활용한 「신고제도에 의한 경관형성」에서 계획구역을 지구별로 구분하여 경관형성의 목표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착수에 앞서 협의를 통한 경관형성을 유도해가고 있다[4].



[그림 3] 사전협의의 수순 및 방식
[Fig. 3] Pre-drill and how consultation

또한, 도시만들기와 연대한 방식으로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기준법의 인허가를 수반하는 도시개발 관련 제도 등을 적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등의 수속 개시에 앞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색채는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건축물 등의 계획에 있어서는 색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4. 경관색채 형성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경관시책에 따라 형성된 구역별 색채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항목별 색채기준에 의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장에서는 실제 적용구역의 범위와 그에 따른 색채형성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계획구역별 명칭과 위치는 표 2에 나타내었다.

4.1 경관 기본축의 색채형성

해역과 바다가 일체가 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임해 경관 기본축 구역의 색채적용 구역의 범위는 표 3과 같다. 해상이나 만에서 보이는 상태 즉, 근접하고 있는 스미다 하천 경관 기본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변으로부터 50m의 육지부분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스미다 하천 경관 기본축은 스미다 하천의 양측에서 각각 50m, 간다 하천 경관 기본축은 각각 20m 육상구역을 색채대상구역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경관 및 색채형성 현황을 살펴보면, 임해부는 만을 둘러싸듯이 고층건축물이 늘어서 도교의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뛰어난 입지에 부도심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도교항 가장 안쪽구역에는 스미다 하천 하구로 계속

[표 2] 경관색채 형성을 위한 구역별 명칭 및 위치
[Table 2] Area name and location for color-scape formation

구역 명칭		구역별 위치
경관 기본 축	해안계	임해 경관 기본축
	하천계	스미다 하천 경관 기본축
		간다 하천 경관 기본축
	녹지계	다마가와상수 경관 기본축
		코쿠분 경사 경관 기본축
구릉지 경관 기본축		
경관 형성 특별 지구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 특별지구(각 정원의 외주선으로부터 대략100~300m의 범위)	
	수변경관형성	
일반 지역	특별구	
	시읍면	

자료 : 디자인서울출판본부, 일본의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나인, 2008, p.8, 표, 그림 참조 제작성

되는 수역을 중심으로 도시시설과 항만시설이 융합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물의 색채는 대체로 밝은 무채색이나 난색계 색상의 저채도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항만시설 중에는 적백색의 크레인 등과 같은 다이아믹한 색이 사용되고 있다[4].

[표 3] 경관 기본축의 색채대상구역 범위
[Table 3] Color-scape area range of basic landscape axis

구역 명칭	구역 범위
임해 경관 기본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 및 바다와 일체가 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는 육지부분 • 내륙 연안부는 해상이나 만에서 보이는 상태, 근접하고 있는 스미다 하천 경관축과의 관계 등을 검토, 수변으로부터 50m의 육지부분 및 카사이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매립되어진 육지부분
스미다 하천 경관 기본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미다 하천 구역 및 양측에서 각각 50m의 육상의 구역
간다 하천 경관 기본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다 하천 구역 및 양측에서 각각 20m의 육상의 구역, 나혼바시 하천으로 함

하천계에 해당하는 스미다 하천 경관 기본축의 경관은 도쿄만과 이어지는 하구부에 아사쿠사, 구라마에 등의 번두리 경관들로 형성되어 있다. 천변 주위의 건축물 색채 환경은 저채도색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난색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나타나지만, 일부 건축물과 고가도로, 제방 등의 대형 구조물에 원색계열의 자극적 색채가 사용되어 주위와 조화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그림 4).



[그림 4] 경관 기본축 구역의 색채형성
[Fig. 4] Color formation of basic landscape axis

그리고 하류부 간다 하천 연안에는 건축물이 조밀하게 늘어서 있으며, 세월의 흔적으로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색채환경에 있어서는 난색계의 통일된 분위기가 연출된다.

녹지계 경관 기본축에 해당하는 다마가와상수 경관 기본축의 경관은 하무라시의 취수보로부터 신주쿠구의 요

즈야오키도까지의 전체 길이 약 43km 상수로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1654년에 완성되었다. 지금은 사계절 별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되고 있으며, 그 양측의 가로수나 정원수 등, 연속적인 자연 속에 단독주택, 병용주택, 집합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나 규모에 비해, 색채는 난색계열의 저채도색이 중심을 이룸으로서 비교적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녹지계에 해당하는 코쿠분 경사 경관 기본축 구역은 도쿄의 거의 한가운데 위치해 대부분이 고지대에 평탄하게 자리 잡은 무사시노 대지가 차지하고 있다. 남쪽 끝에는 급격한 코쿠분지 경사면 지대가 있고, 그 곳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낮은 곳에는 타치카와 대지 및 고지대를 굽이 흐르는 노가와 상류의 계곡이 있다[5]. 여기 코쿠분지 경사면 지대는 가파른 절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기복이 있는 녹음을 배경으로 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외에도 경사면 가까운 곳에는 옛 부터의 농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전반적인 색채형성은 난색계열의 저채도색이 주로 사용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백색의 건축물이 절벽으로 이어지는 녹음으로부터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릉지 경관 기본축 구역은 단독주택이나 집합주택이 구릉지를 배경으로 입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온화한 색조로 자연과 융화하는 경관을 만들고 있다.

4.2 경관형성 특별지구의 색채형성

경관형성 특별지구는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 특별지구와 수변경관형성 특별지구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 특별지구는 하마리궁 은사 정원(浜離宮恩賜庭園), 구시바리궁 은사 정원(旧芝離宮恩賜庭園), 키요스미 정원(清澄庭園), 신주쿠교엔(新宿御苑) 주변으로부터 약 100~300m까지를 색채기준 대상구역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표 4).

먼저, 하마리궁 은사 정원 주변의 경관현황을 살펴보면,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시오도메 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며, 정원의 북동쪽에는 긴자나 츠키지 시장으로 통하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도쿄에는 도심 곳곳에서 미래 도시를 테마로 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시오도메 시오사이트 지구로 오피스 빌딩과 고층아파트,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 있다[6].

이 지역은 ‘여유롭고 세련된 도시생활’을 캐치 플레이즈로 내걸고 주로 난색계의 저채도색을 기조로 안정감 있는 건축물 색채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변의 가로경관도

[표 4] 경관형성 특별지구의 색채대상구역 범위

[Table 4] Color-scape area range of special landscape district

구역 명칭	구역 범위			
	하마리궁 은사 정원	구시바리궁 은사 정원	키요스미 정원	신주쿠쿄엔
문화재, 정원 등 경관형성 특별지구				
	· 각 정원의 외주선으로부터 대략 100~300m의 범위			
수변경관형성 특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스포츠나 운하 르네상스 추진 지구를 연결하는 수상버스의 주요 루트 ·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토지 사용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도쿄 임해지역 ·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등의 시설 후보지 등 - 수변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구역 			

대체로 차분함이 있는 색채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5). 그리고 구시바리궁 은사 정원 주변은 상업, 업무기능의 고층건물이 밝고 온화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키요스미 정원 주변도 다양한 용도에 비해, 통일감 있는 색채가 형성되고 있다.



시오도메(시오사이트) 지구의
경관

신주쿠쿄엔의
주변 경관

[그림 5] 문화재, 정원 등 특별지구의 색채형성
[Fig. 5] Color formation of special landscape district, such as cultural heritages, gardens

신주쿠쿄엔은 58만㎡의 드넓은 부지에 넓은 잔디밭과 일본 정원, 프랑스식 정원, 영국식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도쿄 최고의 하나미(벚꽃놀이)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6], 주변은 상업·업무빌딩, 맨션 등이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난색계 색상의 채도가 낮고, 비교적 명도가 높은 외벽색 사용으로 주변 건물과 연속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수변경관형성 특별지구는 바다나 운하 등의 수역에 의해 풍부한 수변공간이 형성되고 있어 수변을 살린 관광지구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오다이바를 비롯해 이들 수변경관지구 주변의 상업·업무시설 건축물

은 대체로 밝은 저채도색을 유도함으로써 수변경관에 어울리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도쿄 임해부도심(오다이바)

도쿄 베이의 경관

[그림 6] 수변경관형성 특별지구의 색채형성
[Fig. 6] Color formation of special waterfront landscape district

4.3 일반지역의 색채형성

경관계획구역 가운데, 경관 기본축 및 경관형성 특별지구 이외의 전 지역이 일반지역에 해당된다. 즉, 도심부에서 타마지역 구릉부까지 고층건축물이 다양하게 입지하고 있다.

도쿄 관문지구에 해당하는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통합디자인에 의해 체계적인 재생수법이 실시된 지역으로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역사적 경관과 건축물을 보존 활용하면서 정비, 재생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로 주변을 대칭축으로 정비하여 마루노우치 지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색채유도기준을 마련해 지구브랜드화, 역사적 건축물 보존, 활용과 중심가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7].



[그림 7] 일반지역의 색채형성
 [Fig. 7] Color formation of general area

그리고 타마지구에는 뉴타운 개발 이전에 존재했던 싱그러운 자연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공원을 배치하고, 자연식생과 조화되는 택지조성이나 경사지를 활용하는 주택건설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자연이 풍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고 있다[8].

경관색채는 특별구나 역 주변 시가지 타마지역에서는 채도가 낮은 따뜻한 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타마지역의 자연 구릉을 배경으로 건축물들은 자연 입지를 고려한 온화한 색채가 형성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 도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나타난 사업배경과 도시 미래상, 도시만들기의 과정 및 목표, 경관형성 계획에 따른 시책 및 진행방식, 색채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의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개념으로 접근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환경,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공성 우선의 원칙 아래 도시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사회경제의 큰 변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새로운 도시만들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시만들기와 연대한 방식의 ‘사전협의제’ 및 ‘지역경관만들기 조직’, 시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경관만들기’ 활동 등의 사업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가유도를 통해 개방적 도시정비를 실현하고 있다.

둘째,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색채 형성을 위해 바다와 하천 등의 수변지구와 구릉지 그리고 문화재 특별지구 등과 같이 세분화된 색채구역 관리를 통해 도쿄만이 지니는 특성과 개성을 살려 내고 있다. 특히, 경관계획 구역내에서의 「신고제도」에 의한 사전협의 진행방식은 색

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양호한 색채경관을 형성하는데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셋째, 경관계획구역별 색채특성 분석 결과, 해역 및 바다 그리고 하천지역의 건축물 색채는 대체로 밝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여 수변경관에 어울리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으며, 구릉지 지대는 녹음과 융화하는 온화한 색조를 사용하여 자연과 일체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심의 문화재, 정원 주변의 상업·업무빌딩이 있는 시가지와 가로경관은 저채도색을 기조로 안정감과 차분함이 있는 색채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근거한 구역별 색채형성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색채경관 창출과 함께,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쿄의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해 개괄적 내용을 다룸으로써 색채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현장조사를 통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동시에 경관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ong, Dae-Ho, Advanced Case Review of Public Design for the Urban Landscape Form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25, p.403, 2010.
- [2] Industrial Design Assessment Team, Create a public design projects in the city competitive,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pp.15-16, 2009.
- [3] <http://www.u-story.kr/167>.
- [4] Design Seoul Headquarters, TOKYO, TODA, KAWASAKI Color Scape for Japan, Design Nine, pp.5-9, 2008.
- [5] http://www.city.kokubunji.tokyo.jp/dbps_data/_material_/localhost/150000/s151500/01gaiyou_ck.pdf.
- [6] Editorial writings, I Love Tokyo, pp.214-288, Random House Korea Co., Ltd., 2010.
- [7] Won, Je-Mu, Choe, Won-Cheol, Seo, Eun-Young Collaborated, The imagination of a creative city project, pp.145-147, Rudenseu, 2010.
- [8] <http://blog.naver.com/ecoagend/30034571569>.

송 대 호(Dae-Ho Song)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1999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2000년 3월 ~ 2010년 2월 : 동
명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
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건축, 경관계획